

# 영천시 고용률 68.5%...경북 도내 시 단위서 1위

최기문 영천시장의 인구정책이 눈부시다.  
 이 뿐 아니다.  
 일자리창출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국가 지정 고용 지표로 증명됐다.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를 확대해 고용률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영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고용률 68.5%로 경북 시 단위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상주시가 67.7%로 2위, 김천시 66.2%, 문경시 65.0%, 안동시 63.2%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62.5%이며 경북 평균은 61.3%다.



대구광역시 **Weekend**

한판볼자

2월 26일(월)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보배  
전국아마골프대회

D-4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 구독문의  
 053-253-0000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3



## 중구청, KT와 함께하는 드림스타트 지원 협약 체결

대구 중구는 2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KT와 함께하는 드림스타트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날 류규하 중구청장, 이차형 ㈜KT서대구지사장, 최성진 ㈜KT중대구지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KT는 아동의 학습향상에 필요한 물품 후원과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통신비 종합 컨설팅 및 효율적인 통신 사용법 안

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구청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을 선정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 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정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민생 외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너도나도 인상

## 대구 시민단체 “의정비 줄속 인상 지방의회 몰염치” 규탄 성명 발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일괄 증액하려 하자 대구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히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인구수 감소, 의정활동 미비 등을 외면한 채 너도나도 일시에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인구는 감소하며 집행부 견제와 정책경쟁은 미비해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은 사라졌음에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의정활동비를 일괄 인상한다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

과 자질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지방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구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보조활동비 50만원 포함) 이내,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 포함) 이내로 인상에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 대구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내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행위자이자 정책행위자로 공론장의 주체이지 관이 밀어붙이는 요식행위 행정의 객체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들은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을 당당히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사진은 대구 동대구초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 대구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5천만원 증액...

올 교육경비보조금 14억5000만원 확정

대구시 동구는 지역 초·중·고 56개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된 14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중점 지원사업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

한 영어특화 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 신장 분야, 일반고 대상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석사비 지원 등이다.

동구는 초·중학교에 한해 학교별 학생 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강화하고 학교연합 프로그램 분야를 신설해 학교 간 협력과 인적·물적 지원도 장려한다.

학습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성과를 인

정받은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사업'은 올해 신청자가 증가해 1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총 1366명의 중고등학생이 수강했다. 윤 청장은 “정주여건의 핵심은 교육환경”이라며 “공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 기반을 탄탄히 다져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대구시, ‘화물차 밤샘주차’ 발본색원

대구시, 영업정지 총강수 시민 교통안전 확보 최선

대구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의 교통안전에 위협, 구·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 12개소를 설정, 26일부터 3월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0시~오전 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이다.

시는 지난해 총 81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고 계도와 행정처분 조치했다.

시는 집중단속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는 사업주는 영업정지(6일) 또는 과징금(10

만~20만원)을 부과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2만2381대다. 이 중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인 1.5t 초과는 총 1만3784대로 나타났다.

6250대는 차고지를 대구에, 7534대는 경산, 고령 등 대구시 인근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현재 영업용 공영 화물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북구와 달성군이 각각 철골 나들목 인근 477면, 화원읍포 나들목 인근 612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내년 준공 예정) 중에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구역 집중단속을 포함한 불법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강화, 현재 조성 중인 공영 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교육

보조금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훈련 최선

군위군은 지난 20일 지방보조사업 업무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 사용자 교육을 했다.

보탬e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방보조사업은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사업별로 수기 관리됐지만 올해 1월 보탬e 시스템이 전면개통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보조사업자도 보탬e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군은 보조금 사업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

간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해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업무 전반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과정은 △기초 교부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관리, 민간보조사업자 과정은 △회원가입 및 단체관리 △공모사업 신청 △수행사업계획 신청 △집행관리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말미에는 다양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탬e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예산 관리 체계를 확립,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3월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조정 및 신설 운행

달성군은 대구시와 협의,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600번과 425번, 달서1번의 노선이 조정, 지선 노선인 달성4번이 신설 운행된다고 밝혔다.

노선조정은 장거리 운행노선인 600번의 CNG 충전으로 인한 미운영 문제를 해결한다.

달성군 관내에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 대중교통이 취약한 일부 지역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준다.

시내버스 600번은 달성2차산단을 출발, 앞산 공원을 종점으로 운행됐다.

## 경북소방,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1만6308명 인력 1021여대 장비 동원, 24시간 즉시출동 대응 태세 박짝긴장

경북소방본부는 23~26일까지 정월대보름 기간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총 1만6308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1021여대의 장비를 동원, 24시간 즉시 출동 대응 태세를 갖춰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장 대응 및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지휘선상에서 근무, 긴급 상황을 대비해 관서별로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현장대

응 및 상황관리 강화 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자율안전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대상은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정월대보름 축제·행사장 등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쥐불놀이 등 화기 취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화선 등을 구축 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과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확립해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경북교육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을까?

경북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업무용 앱 20종 개발 보급

경북교육청 '인공지능(AI) 활용 실험실'이 교수학습과 업무용 앱 20종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실험실'은 AI와 교사가 협업해 교수-학습 및 업무용 도구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출범한 경북교육청의 인공지능 활용 온라인 실험실이다.

개발된 20종의 앱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하이퍼 클로바 X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

국내의 교육 현장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이라

고 교육청은 밝혔다.

개발·보급된 앱들은 보도자료와 연설문 작성을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폭력 예방 업무 처리, 감사 업무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앱 등으로 돼 있다.

수업 관련 앱으로는 경북교육청이 올해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해 추진 중인 '질문에서 출발해 개념에 이르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었다.

교육청은 이 앱이 교과별 탐구 질문,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답변에 기초한 질문 이어가기,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나 통합교육과정의 설계를 돕는 탐구 질문, 수행 과제 시나리오 작성 도우미 등 교실에서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현장 교사들의 교실 수업 개선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문과 관련된 앱들은 지난 16일 경주에서 4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 연수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미래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약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G-AI Lab)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과 교수학습 지원에 획기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MG우성새마을금고, 줌도리 운동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경주 MG우성새마을금고는 지난 20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미리)를 방문해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백미 200kg과 라면 10박스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줍도리'란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을 지을 때 미리 한 술씩 덜어내 부뚜막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것으로, 전통적인 심시일반의 정신을 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98년

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정희 MG우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경주시, 신혼부부 예복 등 최대 30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주' 건설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도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연 2.5%이하의 이차금리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예비엄마-아빠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한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가 예비부부-예비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정책참여단 '경청 3기' 위촉

### 1년간 청년정책 기획·발굴 자문까지 역할 수행 기대

경주시가 청년정책참여단 '경청 3기' 단원을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 이성환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하주형 청년센터 팀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다.

단원들은 직장인, 창업자, 대학생 등 문화, 주거, 취·창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 청년들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취·창업에 대한 청년정책

발굴, 은둔형 청년 생활 문제 분석, 청년 문화·예술 발전 방안 등 지역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기획·발굴, 자문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단원들이 직접 청년정책 제안서를 작성, 문화, 주거, 취·창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시범운영까지 시행한다.

경청 3기 단원들은 지난달 22~2월 4일까지 2주간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청년들의 의견이 담긴 청년 정책들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경주 만들기에 더욱 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 주낙영,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배터리공유스테이션 통합 관제 허브 센터 건립 힘차게 돛 올려

경주시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반구축 거점관 건립에 첫 삽을 뜬다.

시는 21일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소재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대회의실에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경북도, 경주시 관계자를 비롯한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 공사감리 및

시공사 등 40명이 참석해 공정별 공사 현황을 공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사 예정 터 현황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건설시공을 당부했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는 외동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세 번째로 건립되는 R&D 센터다.

이 사업은 공사비 94억 원 및 장비구축비 100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들여 연구동(지상 2층), 관제동(지상 2층), 평가동(지상 1층)의 연면적 1775㎡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이달 안으로 착공해 12월 준공된다. 향후 통합관제허브센터가 문을 열면 공유스테이션 실증·평가 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 배

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을 수행한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과 수요자 대응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개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인다.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인프라는 배터리·관련 기업 유치, 자동차 부품기업 생산아이템 다변화 등 지역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당신이 있어 세상을 참 밝습니다"

###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회 감포읍 2천만 상당 물품기탁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회는 지난 19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민대)를 방문, 컴퓨터, 텔레비전, 화장품 등 2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 단위의 NGO단체다.

지난 설 명절에도 여성용 화장품품을 기탁했다.

전달 행사에는 서삼란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강신원 감포읍 발전협의회장, 고하근 감포읍 이장협의회장이 함께 자리해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된 물품은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 경주동공원, 4월 15일까지 휴관...

### 기타 체험시설 정상 운영

경주 동공원 식물원 1·2관을 4월 15일까지 휴관한다.

이번 휴관은 시설 보수를 위한 조치다.

다만 경주버드파크와 동공원 내 기타 체험 시설은 정상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공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동공원(054-779-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장원 동공원장은 "동공원은 사계절 푸르른 아열대 식물원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시설 개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식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베뉴, 경주엑스포대공원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 안전한 영양 실현...ZERO 목표 달성 추구

## 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ZERO 목표 달성 위한 의지 표명



영양군은 2024년을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영양 실현'으로 정하고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군정을 집중기로 했다.

군은 21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군 직원 및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영양 실현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영양군의 의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군은 이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 부서별 조직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사항에 대해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건설안전기술원 산업안전지도사 안흥기대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위험성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방법,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안대표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제시하

고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시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안전보건활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사항을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권윤동 기자



오도창 영양 군수는 2월 22일 (목) 오후 4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업안면 체육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영양군, 2024년 제1차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

영양군은 21일 군청 전정 및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대구경북혈액원의 헌혈버스 2대를 지원받아 직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운동은 급격하고령화에 따른 수혈인구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우려해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헌혈이 가능한 연령은 16~69세까지로 65세 이상은 60~64세까지 헌혈 허용령자에 한해 가능하다. 권윤동 기자



청도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시 교통비 20만원 지원

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준은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부터 신청자 354명에 대하여 10만 원씩 지급해 왔다. 조여은 기자

## 울릉군, 철통 보안...새내기 공무원 정보보안 강화 교육

### 보안에 대한 기강 확립과 보안사고 예방위해 마련

울릉군은 지난 21일 1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임용자들이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안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울릉군 보안업무 체계를 숙지함과 동시에 국익에 반하는 북한 및 외국의 활동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울릉군의 보안업무 체계와 공직자로서 접하게 되는 비밀문서와 시설 등의 관리 및 보호 방법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

으로 교육을 실시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단 한 건의 보안사고로 우리가 이룩해 낸 지식과 재산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환 기자

### 영양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위원회 개최

영양군 21일 2024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및 공동살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농정지원단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추진하고 공동살포 대행단으로 영양군 농업경영인유통사업단을 선정했다.

청기면, 일월면에 대해 공동살포를 23일부터 2~3주간 실시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하석)를 무상으로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하기 위해 추진한다.

고령농및여성농기증기보토양개량제살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가 많아 집에 따라 공동살포 대행단을 선정하여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 개별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권윤동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 민원담당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 상호 소통으로 업무환경 및 민원행정 개선 의지 다져

김광열 영덕군수는 일선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공유하기 위해 지난 20일 청사 소담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군수는 대민업무에 의한 중압감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참석한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즉시 해결이 가능한 건의는 담당부서에 바로 지시하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겸양하고 다그쳐야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영덕군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감을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담당 직원들을 보호를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본청을 포함한 읍·면·민원장구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 조여은 기자

### 영덕 지역공동체알리리사업 개시

영덕군은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알리리사업'의 발대식을 지난 19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7명은 안전교육을 마친 후 6월 말까지 약 5개월간 관내 읍·면 곳곳에 배치돼 꽃길 조성사업, 하천변 산책로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장에 투입된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유형에 따라 1일 3~6시간씩 근무해 시간당 9800원의 임금과 1일 교통비 5000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날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장순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의 사례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법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영덕군은 근로 참여자들에게 근무복과 모자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사업장 수시 점검 등을 안내해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충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호 알리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의 참여자 중에는 고령분이 적잖이 계셔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여 주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뵈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길

**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

**빛**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빛

**맛**

영양 특산물로 만든 맛있는 요리

**쉼**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쉼

김들음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의 남이모, 삼의계곡, 수려계곡, 분신계곡, 천변공원, 촉백수원, 외씨나들길
- 영양의 역사, 을사대기념,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보존국립, 반도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그늘초등학교, 영양산사생태공원, 영양공작발전단지, 흥감산자연유원지, 안장산생태휴양림, 분서수사생태휴양림, 말갈산사생태공원, 영양공작발전단지, 흥감산자연유원지, 안장산생태휴양림, 분서수사생태휴양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반드시 천년고도 경주에!!

꿈나무야성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50만원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참가규모 88팀(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월 20일** (입금자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행사장소** : 경주더케어 호텔 2층 거문고실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 탠런트 이영범 | 가수 소명 | 탠런트 최용준



가수 백봉기 | 가수 신비 | 가수 골드

대구  
광역시  
일보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우승 준비이런 남성 풀세트
- 여자우승 준비이런 여성 풀세트
- 남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시상내역

- 여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남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니어 준비이런퍼터
- 여자 니어 준비이런퍼터